

녹색연합등록번호  
01-11-12-01

## 저탄소 녹색성북 시민참여방안 모색 토론회

---

2011. 12. 15(목), 오후 2:00 - 4:00  
성북아트홀

주관 : 녹색성북네트워크, 성북구  
후원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저탄소 녹색성북 시민참여방안 모색 토론회

2011 12 15(목) 오후 2시~4시 | 성북아트홀(성북구청 4층)

주관 : 녹색성북네트워크, 성북구  
후원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프로그램

김제남	
인사말	/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운영위원장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 위원장
격려사	김영배 / 성북구청장
사회	유경순 / 성북생협 상임이사
녹색성북네트워크 각 활동사례 발표	
사례 1	녹색연합 5
사례 2	두산위브아파트 13
사례 3	한살림 17
사례 4	한성여자중학교 23
사례 5	정릉종합사회복지관 32
구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없는 성북 만들기 /성북구	45
2012 저탄소 녹색성북 시민참여방안 제안 / 녹색연합	59
종합토론	

## ‘녹색성북’ 만들기와 대학의 역할

김세영(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이너)

대학교는 2010년 에너지 다소비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사용 2위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 에너지 소비 집단이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대학의 에너지 소비 증가량은 107%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량이 21.5%인데 비해 약 5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더불어, 대학에서부터 노력과 실천이 절실하다.

특히 성북구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의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재학생만 7만 여명에 달한다(서울시내 37개 대학교, 재학생 약 47만 명). 거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학과 함께, 대학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대학이 역시 지역사회의 온실가스 배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북’을 만들어 가는데 대학, 대학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녹색연합은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 대학가 시스템이 대학생의 에너지 사용태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주거형태와 에너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기숙사, 고시원, 하숙은 대부분 샤워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스스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택에서 통학한다 하더라도 직접 에너지 사용요금을 지불,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낮았다. 한편,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별도로 지불하는 비율이 높았던 원룸 및 오피스텔 거주자 35명 가운데 15명이 알고 있다고 답변해 다른 주거형태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절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답변이 약 4배가량 많았다. 스스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인지 여부가 스스로 사용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대학가의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구호는 넘쳐나지만, 모순되게도 가장 기본적인 스

스로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접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에너지, 기후변화에 무관심(무감각)한 대학생의 의식만을 탓하기 보다는 에너지사용량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접하기 힘든 구조 대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

2) 친환경먹을거리 이용은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 수송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대학생의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친환경먹을거리에 대해 들어봤거나 잘 아는 경우가 83%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친환경먹을거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친환경먹을거리를 자주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전문식당, 생협한살림, 텃밭재배)이 50%에 못 미친다. 학생들의 친환경 먹을거리 이용을 저지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32%가 비싼 가격을 이유로 들었다. 관심은 있으나 친환경먹을거리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취급하는 매장, 식당을 찾기가 어려워 사용하기 힘들다고 답변한 사람도 약 18%였다. 대학생의 건강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대학과 대학가의 친환경 먹을거리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3) 대학생의 그린캠퍼스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그린캠퍼스의 필요성에 대해 약 75%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린캠퍼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실이나, 설문이 그린캠퍼스의 의미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이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린캠퍼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택한 이유로는 대학 주도로 학생이 참여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비싼 등록금을 낸 만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약 30%를 차지했다. 비싼 등록금이 의식 없는 에너지 사용에 면죄부로 작용하는 한편, 대학 주도로 진행해 학생참여의 여지가 없어, 결국 대학생인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그린캠퍼스 활동의 학생참여 활성화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여 절약된 예산만큼 등록금 인하’가 136명, ‘그린장학금’이 123명으로 학생참여 인센티브가 가장 많았으며, 106명의 학생이 그린캠퍼스 정책의 학생참여 시스템을 꼽았다.

전국 349개 대학, 약 300만 여명의 재학생이 생활하는 대학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보는 큰 실험실이기도 하다. 대학생들의 주 생활무대로서의 대학, 대학가에서 부터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은 곧 에

비 사회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키우는 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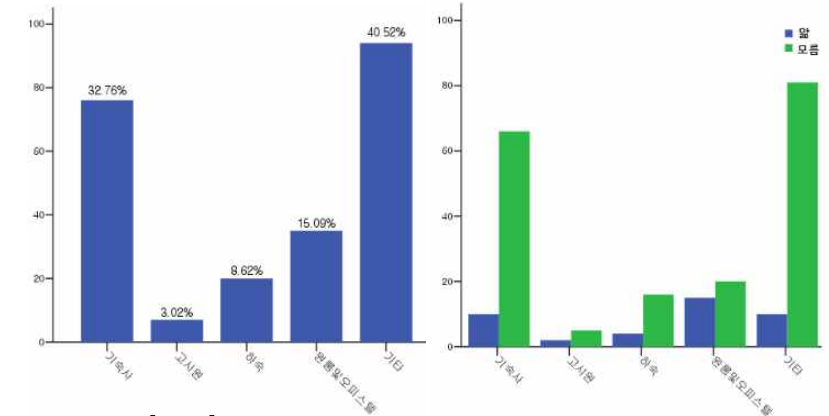
비싼 등록금과 주거비, 취업난 등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소비를 부추기는 대학가 문화는 적극적인 실천의 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둔화시키는 구조이다.

대학생들의 주요 생활무대인 대학, 대학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대학생의 의식변화와 함께 '녹색성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 주요 문항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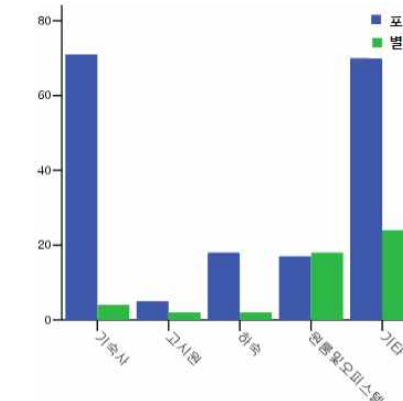
- 설문 진행 : 고려대학교 재학생(유채운, 최인우, 황원준, 김수린)
- 설문 대상 : 고려대학교 재학생 234명(남성 114명, 여성 120명)

#### 1. 주거형태와 에너지 사용요금 인지여부



[도표1]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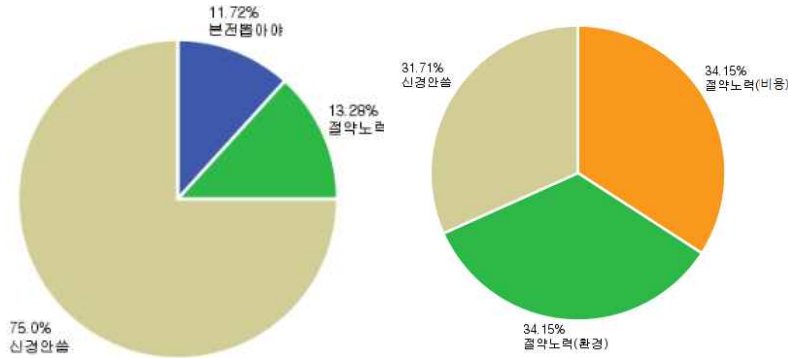
[도표2] 에너지 사용량 인지 여부



[도표3] 에너지 사용 요금 포함 여부

현재 주거형태에 대한 질문에 기숙사가 76명, 고시원이 7명, 하숙이 20명, 원룸 및 오피스텔이 35명, 기타(자택에서 통학)가 94명으로 나타났다(무응답 2명). 주거형태가 본인이 지불하는 에너지 사용요금 및 사용량을 인지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분석해본 결과, [도표 2]와 같이 기숙사, 고시원, 하숙, 기타(자택)에서는 본인이 지불하는 에너지 사용요금 및 사용량을 아는 비율이 낮은 반면, 원룸 및 오피스텔 거주자 35명 가운데 15명이 알고 있다고 답변해 다른 주거형태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표3]과 같이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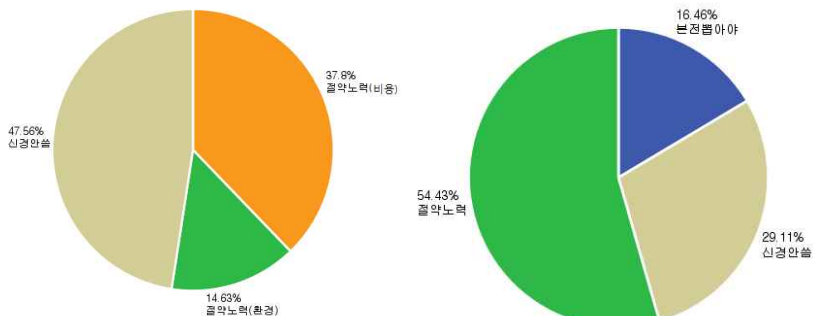
## 2. 주거비에 에너지 사용요금 포함 여부가 에너지 사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도표 4] 주거비에 이용요금 포함경우

[도표 5] 별도로 지불하게 될 경우

[도표 4]과 같이 에너지를 평소보다 적게 혹은 많이 사용하더라도 고정된 주거비를 지불할 경우 75%가 특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나 의식 없이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13.28%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소수이지만 11.72%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지불하는 금액은 고정되어있으므로 마음껏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도표 5]는 만일 주거비 외에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별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에너지 사용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든, 환경을 생각해서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약 70%로, 주거비에 포함되어있을 때보다 약 5배 이상이 에너지 사용태도가 바뀔 것이라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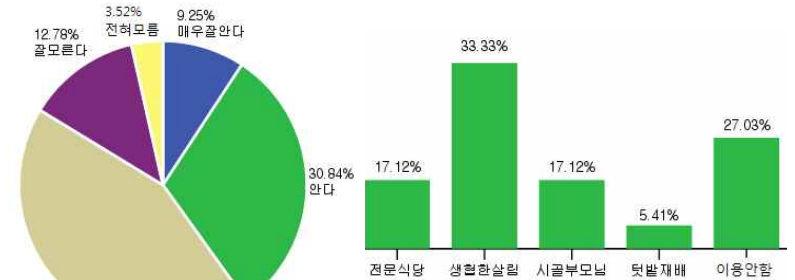


[도표 6] 주거비와 별도로 지불 경우

[도표 7] 포함하게 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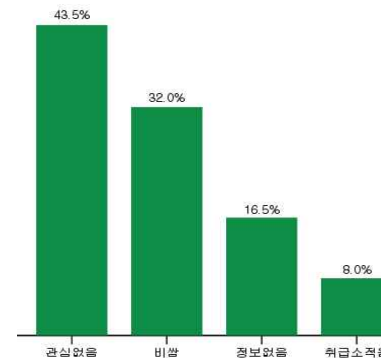
한편 주거비와 별도로 사용한 만큼 에너지 요금을 지불할 경우 에너지 사용 태도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것이 [도표 6]다. 비용, 환경적 이유를 포함해 약 52%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약 48%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표 7]은 주거비에 에너지 이용요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에너지 사용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미미하지만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약간 늘어났으며, 약 17%가 마음껏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 3. 대학생과 친환경 먹을거리



[그래프 1] 친환경먹을거리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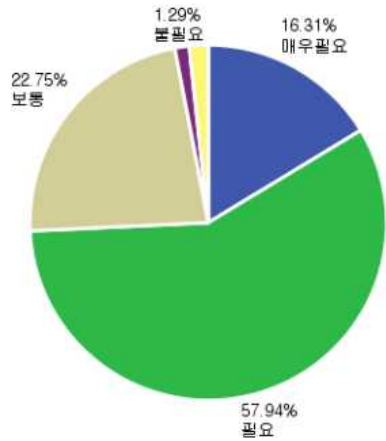
[도표 8] 친환경 먹을거리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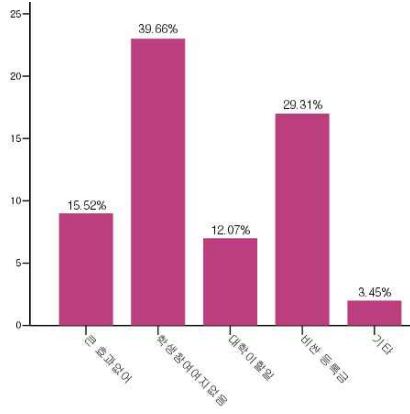
[그래프 2] 이용하지 않는 이유

친환경먹을거리에 들어봤거나 잘 아는 경우가 83%, 약 17%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3%가 친환경먹을거리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33%가 생협 또는 한살림, 17%가 전문식당 이용, 17%가 시골에서 부모님이 직접 공수, 약 5%가 텃밭을 재배를 통해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친환경먹을거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심 없어서'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약 32%가 비싼 가격을 이유로 들었다. 관심은 있으나 친환경먹을거리를 파는 매장이나 식당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용하기 힘들다고 답변한 사람도 9%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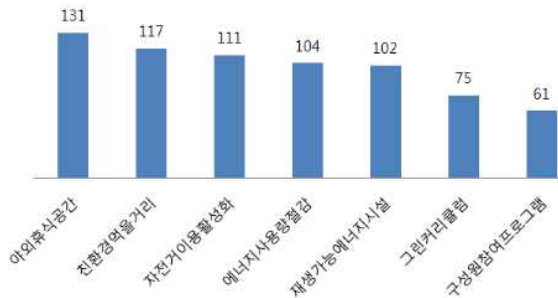
#### 4. 대학생과 그린캠퍼스



[도표9] 그린캠퍼스 필요인가



[그래프3] 필요하지 않은 이유



[그래프4] 그린캠퍼스 희망사업

그린캠퍼스의 필요성에 대해선 약 75%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린캠퍼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실이나, 설문이 그린캠퍼스의 의미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이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린캠퍼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택한 이유로는 대학 주도로 학생이 참여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비싼 등록금을 낸 만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약 30%를 차지했다. 희망하는 그린캠퍼스 정책을 복수 선택하는 문항에 131명이 야외휴식공간을 꼽았는데, 이는 도로가 넓고 녹지 휴식공간이 부족한 고려대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친환경 경먹거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각각 117명, 111명으로 많았다.



[그래프5] 그린캠퍼스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법

그린캠퍼스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에너지 사용을 줄여 절약된 예산 만큼 등록금 인하'가 136명, '그린장학금'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참여를 통한 그린캠퍼스 구축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같이 대학 구성원이 활동성과를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5. 대학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혹은 건의사항

- 에너지 사용 줄인 만큼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급(25명)
- 먹거리 정책(채식운동 전개 및 유기농 식단(10명))
- 에너지 절약 (4명)
- 에코 커리큘럼 확대(3명)
- 자동에너지 차단 시스템 도입(2명)
- 에너지 사용내역 공개
- 에너지절약 학부에 인센티브 제공
- 학생조직을 통해 학생참여 확대
- 재생가능에너지시설 설치

## 녹색아파트

- 진행상황
  - 녹색아파트 탐방 : 10.17 광주신안모아아파트 녹색축제
  - 에너지 진단 : 12가구(11월 9일~10일 진행)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지렁이화분 분양) -12가구, 11월 28일 강의와 분양행사
- 향후 활동계획
  - 녹색아파트 가이드북 제작 배포(시민리더), 브로셔 제작배포(입주자 - 2,200가구)









## 한살림 북동지부

시민이 만드는 성북구  
기후행동 프로그램  
<시민교육활동>  
표준교안작성을 작성하여 마을모임,  
신규 조합원, 유치원 및 초등에서 기  
후변화와 식생활, 녹색생활교육 실시



### 한살림에서 제안하는 생활실천운동

1. 잘바구니. 재사용용 영구주세요
2.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3. 에코백을 가지고 다녀요
4. 일주일어 한번 청소로 자원 건강발상
5. 삼자텃밭에 도전하세요

### 한살림북동지부 밥상살림분과회의

일시: 2011년 9월 7일

9월 29일

<기후변화와 바른먹을거리  
교육> 기획회의,  
교안 논의



### <기후변화와 바른 먹을거리 교육1>

일시: 2011년 9월 30일

오후 3시~ 4시 30분

주제: 지나친 육식으로  
힘든 몸과 지구

대상: 전농초등학교 방과  
후교실 6학년학생 15명

내용: 기후변화와 육식의  
문제점 알아보기, 고기  
를 대신한 두부를 이용  
한 두부버거 만들기

한살림 북동지부  
밥상살림분과



**<기후변화와  
바른 먹을거리 교육2>**

일시 : 2011년 11월 25일  
오후 3시~ 4시 30분

주제 : 전통 발효식품과 친  
해지기

대상 : 전농초등학교 방과  
후교실 6학년학생 15명

내용 : 발효식품 알아보기,  
발효식품인 장을 이  
용한 장떡 만들기

한살림 북동지부  
밥상살림본과



더워지는 지구 우리는 무엇 먹을까  
**< 기후변화와 가까운 먹을거리 >**

2011년 10월 26일 초등학교 2~5학년  
한살림북동지부 관경본과



**바른 먹을거리 만드는 모습**



더워지는 지구 우리는 무엇 먹을까  
**<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확인하기 >**

2011년 11월 02일 초등학교 2~5학년  
한살림북동지부 가음본과



더워지는 지구 우리는 무엇 먹을까  
 < 지나친 육식으로 힘든 몸과 지구 >

2011년 11월 09일 초등학교 2-5학년  
 한살림북동지구 반상살림분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11월 23일 강서구 가양초등학교  
 4학년 5반 한살림북동지구 환경분과장



더워지는 지구 우리는 무엇 먹을까  
 < 우리가 먹는 쌀의 소중함 >

2011년 11월 16일 초등학교 2-5학년  
 한살림북동지구 반상살림분과



한 살 림

사람과 풀벌레  
 못생명이  
 노에기대수만년  
 밤먹고삼니다  
 저울노에뽀이느  
 적막과고음까지도  
 버가되고  
 밤이됩니다  
 자유무연혈정.  
 시장개방산품 더욱  
 거센데  
 우리쌀우리산  
 더욱 소중합니다

# 학교에서 실천하는 녹색성북

한성여자중학교

Kiss me ♡



## 어떻게 실천할까

### 교과활동

- 교과내활동
- 통합교과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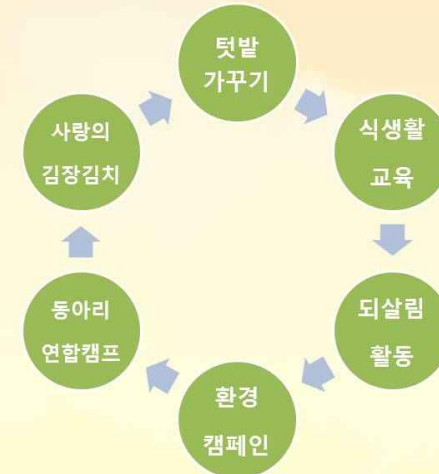
### 동아리 활동

- 오래된 미래
- 초록순가락

### 학급활동

- 초록학급운영
- 외부봉사활동

## 무엇을 실천할까



## 원전반대 캠페인(4월)



## 주말농장활동(4월~11월)



## 학교텃밭 가꾸기(5월~11월)



## 식생활 교육



## 식생활 교육



# 식생활 교육



# 빈 그릇 운동(9월 ~ )



**빈 그릇 운동 안내문**

- 목적
  - (1) 일반 시민의용의 감소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영양상태.
  - (2) 영양상태가 좋아 몸보신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 (3) 편식을 하지 않게 되어 학생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 방법
  - (1) 활동목적 : 빈 그릇 운동의 필요성 및 캠페인 활동 안내
  - (2) 실천방법 : 일일가판(4각지 20회) 별첨된 활동 및 스티커 부착
- 대상
  - (1) 100% 실천한 학생 : 소정의 상품(5가지) 지급
  - (2) 70%~100%이상 실천한 학생 : 추첨하여 도서상품권 지급
  - (3) 활동목적은 빈 그릇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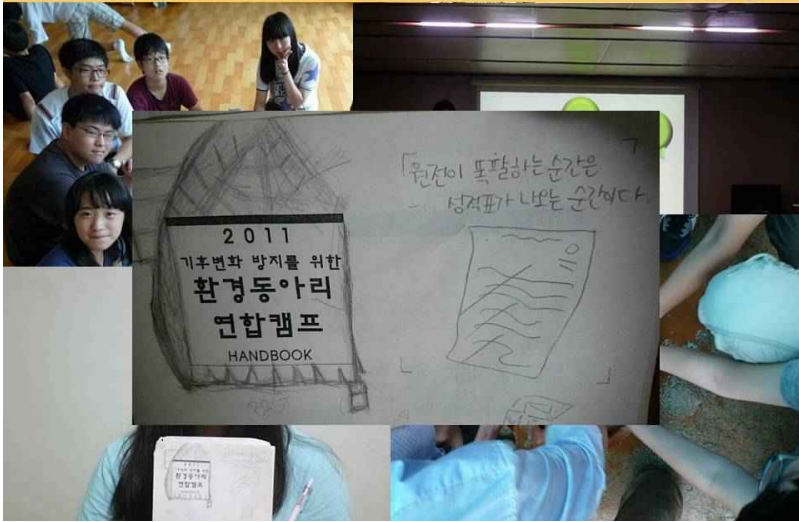
**빈 그릇 운동 실천카드**  
(기간: 9월 1주 - 10월 25일)  
학년 반 이름: \_\_\_\_\_

**빈 그릇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기간: 9월 1주 - 10월 25일)  
학년 반 이름: \_\_\_\_\_

활동목적은 빈 그릇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 환경동아리캠프(7월)



# BMW 캠페인(한성대입구)



## BMW 캠페인(대학로)



## BMW 캠페인(성신여대입구)



## 공정무역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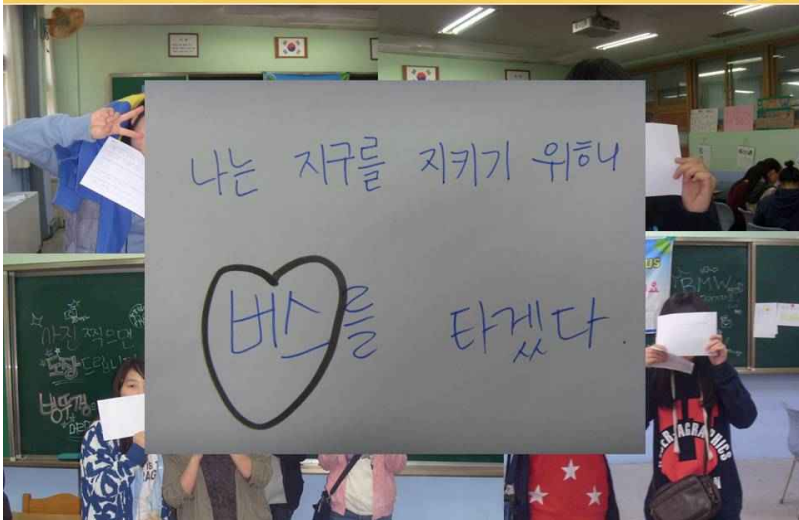
## 한성녹색나눔시장



## 되살림 한마당



## 환경실천서약캠페인



사람과 자연이 함께(請) 그린(Green)  
청(聽). 청(淸). 청(靑) 프로젝트

에너지복지를 실천하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에너지 복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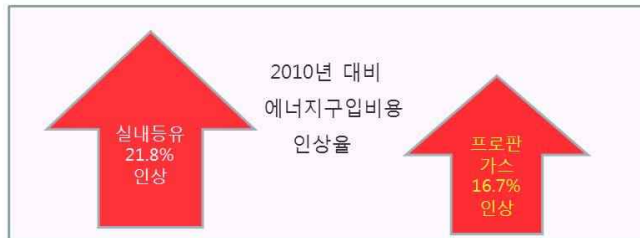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원 프로그램.  
즉, 모든 소비자에게 최소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





## 에너지 빈곤층이란

에너지빈곤층? 광열비(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의 합)기준으로  
에너지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이상을 넘는 가구



2011년 에너지빈곤층 전국 120만 가구로 추산



들어보세요.. 우리 이웃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어느 가족의 슬픈 겨울

난방비가 없어 휴대용 미니 가스난로로 추위를 견디다 이 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 집안에 있던 장애인 박모(18)군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판잣집이지만 난방은 꿈도 못 꿔다.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낚시터**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미니가스난로**. 난로가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은 8분만에 세 평 남짓한 단칸방 내부를 모두 태웠다. 그리고 가족들의 소박한 꿈마저 앗아갔다. 한국일보(2011.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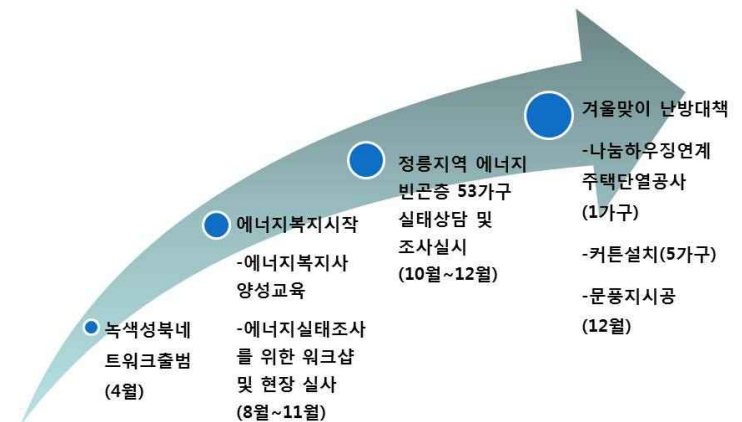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사람과 자연이 함께(請) 그린(Green) 청(聽). 청(淸). 청(靑) 프로젝트'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복지지원사업 선정
  - 형광등 및 갓 무상 교체
- 친환경 차량 구입-하이브리드
-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발전기 설치  
(성북구청 경제환경과 지원)
- '사람과 자연이 함께(請) 그린(Green) 청(聽). 청(淸). 청(靑)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복지, 첫 발을 내딛다!



## 에너지 복지 실천 현장 이야기



시민리더양성교육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에너지복지 워크샵



전문가 현장실사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난방비 지원현황

난방지원현황 (총 64가구)	연탄	등유	LNG	LPG
	4	33	26	1

2011년 12월 현재

## 에너지복지 실태조사현황

거주지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8(15%)	4(7%)	26(49%)	15(29%)
연령	60대	70대	80대	90대
	25(47%)	16(30%)	10(19%)	2(4%)
보호구분	수급자	저소득		
	33(62%)	20(38%)		
난방유형	연탄	등유	LNG	LPG
	6(12%)	23(43%)	23(43%)	1 (2%)

\* 등유 23가구 중 15가구, 연탄 6 가구 중 5가구가 정릉3동임.

## 에너지복지 사례발표 1.

구분	주** 어르신
생활수준	수급권자(월 30만원)
가족현황	독거
주택현황	전세 500만원 무허가 / 슬라브지붕 / 공동화장실 방2개 + 입식주방 + 세탁실 *타인과 공동거주(방1개 사용)
주거환경	-주택 오른편이 높은 지대로 습하여 곰팡이 서식 -겨울철 난방 효율성 매우 낮음. -천정이 슬라브로 하늘만 가린 정도
에너지이용 현황	기름보일러 / 전기장판
대상자 욕구	너무 추워서 힘듭니다. 따뜻하게 살고 싶어요!!

Before &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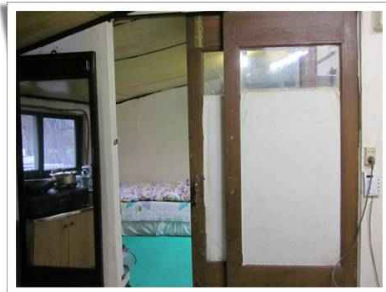


정면(우측지대 높고 습함)



위에서 바라본 지붕(슬라브지붕)

Before & After



주택내부 중간 문-  
오래된 목재로 뒤를러있음



주택내부 천정-  
구멍이 있어 슬라브지붕이 보임

Before & After



낡은 목재중간 문을  
샤시로 교체

Before & After



바람이 들어오던 천정과 벽은 단열재(열반사, 석고보드)로 마무리



참조: 열반사

## Before & After



외부 출입문 문풍지작업

## Before & After



오래된 목재창문



커튼이 없어 이블로 대체

## 에너지복지 사례발표 2.

구분	모자가정 1가구	김** 어르신 외 3가구
생활수준	조건부수급(자활사업참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가족현황	모+아들2명	독거
주택현황	월세(보증금없이 월 10만원) 무허가 / 슬라브지붕 / 재래식화장실	전세, 무허가
주거환경	-비가오면 집안 천정으로 비가 스며들어 내부 벽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있으며, 벽과 천정모두 심하게 들떠있는 상태임. -지붕이 슬라브로 2010년 강풍에 날아가버려 200만원 빚을 얻어 수리했음.	-내부벽, 천정 곰팡이 -외풍이 매우 강함 -애완견이 있는 가구의 경우 외풍을 막기 위해 창문에 비닐을 붙여놓아 -환기가 불가능하여 냄새가 심각함. -대부분의 가구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계단이 많아 매우 위험함. -난방비 절약을 위해 실내온도 10도 이하 설정, 취침 직전 잠시 난방
에너지이용 현황	연탄보일러(월150장 사용) / 온풍기(자녀방)	기름보일러, 도시가스보일러
대상자 욕구		겨울철 난방지원

## Before & After



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자바라 커튼



목재창문으로 바람 솔솔~

Before & After



습한 내부는 벽지에 얼룩이,  
아직도 창호지를 붙이는 창문은 무늬만 창문일 뿐...

Before & After



소박하고, 누추해 보였던 방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커튼 설치**



Before & After



커튼을 설치하니 한결 아늑하고  
따뜻해 하십니다!



Before & After



이제,  
애인만 있으면  
되겠어~~^^

행복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 에너지복지 실천을 위한 제안

1. 겨울철 후원단체 개발을 통해 난방비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나, 에너지복지사업을 통해  
내구성 불량주택의 단열 개선방안을  
녹색성북네트워크, 성북주거복지센터, 동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등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2. 정릉동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조사 및  
실천전략수립을 통해 및 성북구의 에너지복지 실천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구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없는 성북 만들기

2011.12.15

성 북 구

## 발표순서

1. 성북구 현황
2. 개요
3. 추진배경
4. 추진경과
5. 비전 및 목표
6. 추진방향
7. 분야별 추진계획

1

## I 성북구의 현황

sb 성북

### 인 구

- 성북구 201,489 세대, 488,932명 거주
- 면적 24.57 km<sup>2</sup>(서울시 전체면적 4.05%)

### 단위:천명

연도	15~64세	65세이상	0~14세
2005년	349	39	75
2006년	356	42	75
2007년	352	44	74
2008년	354	47	72
2009년	356	49	71

## I 성북구의 현황

sb 성북

### 에너지

#### 연도별 전기사용량(천Mwh)

연도	전기사용량(천Mwh)
05	1,261
06	1,312
07	1,340
08	1,383
09	1,436
10	1,521

#### 연도별 도시가스사용량(천ton)

연도	도시가스사용량(천ton)
05	199
06	200
07	203
08	204
09	203
10	218

#### 분야별 전기사용실태(%)

분야	비율
가정용	95.3%
일반용	2.1%
업무용	2.6%
산업용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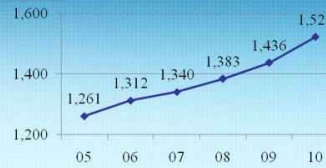
#### 분야별 도시가스사용실태(%)

분야	비율
가정	59.8%
공공	27.9%
상업	7.4%
산업	0.5%

# I 성북구의 현황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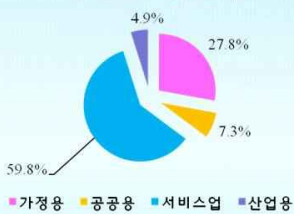
연도별 전기사용량(천M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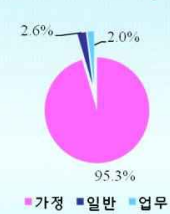
연도별 도시가스사용량(천ton)



분야별 전기사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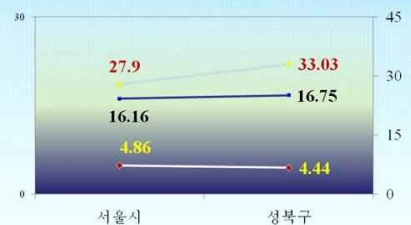
분야별 도시가스 이용실태(%)



# I 성북구의 현황

## 녹지

- 북한산, 북악산, 개운산, 월곡산, 천장산 등이 있으나, 산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발밀도가 높은 시가지화 지역
- 녹지를 5% 미만 지역이 전체 면적대비 22.1%를 차지하고 있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1인당공원면적 • 1인당생활권공원면적 ▲ 공원율

# I 성북구의 현황

##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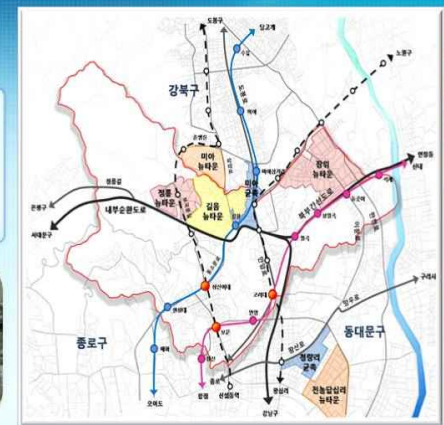
- 성북천, 정릉천, 월곡천, 우이천, 중랑천이 있으며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완료되었음
- 일부 하천구간 복개된 상태이거나 인공하천으로 **점차적 생태하천 복원사업(녹화사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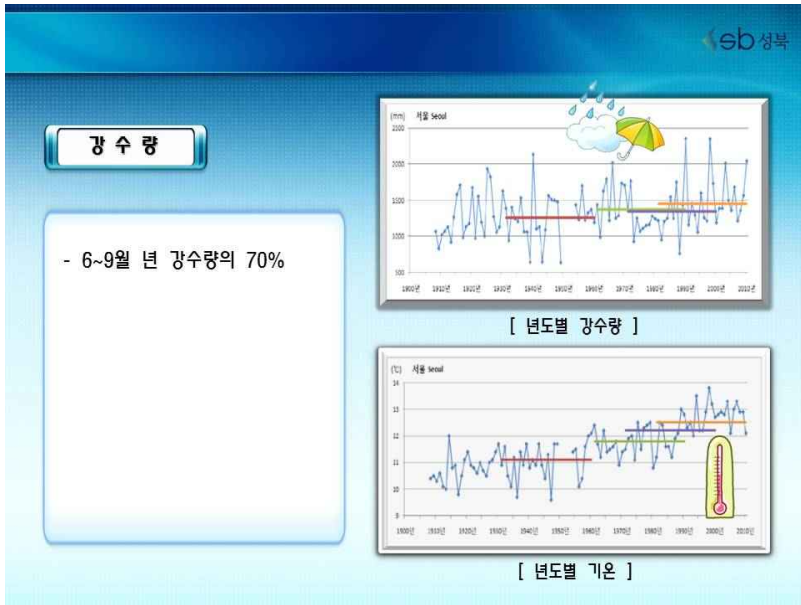
# I 성북구의 현황

## 도로 교통

- 도봉로, 화랑로, 동소문로
-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 서울교통의 중심지
- 지하철 4, 6호선이 운행
- 통과차량의 증가로 교통혼잡







sb 성북

ZERO ZERO ZERO

# 온실가스 없는 성북이란?

## ZERO ZERO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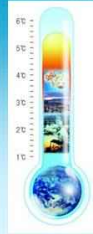
11



## 추진배경



- 2050년 IPCC 목표인 기온상승 2°C 억제
  - 세계인구 20억명 물부족, 생물종 20~30% 멸종
-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2050년 2°C 상승 전망 (국립기상연구소는 3°C 이상 상승)
- 우리나라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 상회
  - \* 지난100년간 6대도시 평균기온 1.7°C 상승(세계 0.74 °C)



13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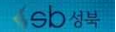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005년 98.7% 증가
  - OECD 국가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1위,
  - 에너지 부문 84.4%로 세계 10위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90.8% 차지**
  - 가정,상업,공공,농림 부문 : 68.2%
  - 수송부문 23.5%(도로 95.2%)
- 성북구는 서울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44% 차지(서울시 자치구중 15위)



14

## 추진배경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05년 배출량 기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 서울시는 90년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2030년까지는 40% 감축 목표
- 우리구 : 미설정
  - \* 성북구 지역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행동계획 마련이 시급

15

## 주요 추진경과







- 2011. 1월 환경과 신설
- 2011. 4월 환경기본조례 개정(제정 ' 08.5월)
- 2011. 4월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 조례 제정
- 2011. 4월 환경정책추진위원회 구성
- 2011. 9월 성북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 2011.10월 환경교육 조례 제정
- 2011.12월 "온실가스없는 성북" 추진계획 수립

16

온실가스 없는 성북



-  제도적 기반 마련
-  저탄소 의식과 생활양식 확산을 위한 학습과 실천
-  구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
-  "온실가스 없는 성북" 대내외 선포로 성북구의 강한 실천의지 표명



- 녹색가치가 실현되는 도시**
- ▶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 (2012년 상반기)
    -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 및 재정적 지원 등
  - ▶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10명): 정책 분야
    - 성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22단체 참여): 행동분야
  - ▶ 행동하는 구민양성 환경교육
    -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운영
    - 그린리더 양성과정(실습)



#### IV.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 에너지이용이 합리적인 도시

-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실적 : 공공부문 64kw, 민간 87 가구에 보급
- ◆ 저탄소 그린디자인 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2011.6.23)
  - 민간 정비사업(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23개소, 공공건축물 3개소
  - 건물인증 : 에너지효율(공공 1등급, 민간 2등급) 친환경건축물(공공 최우수, 민간 우수등급)
  - 저에너지건물(단열, 창호), 신재생에너지(공공 10~12%, 민간 건축비 1%)
-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 ◆ 공동주택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단열과 태양에너지 사용  
녹색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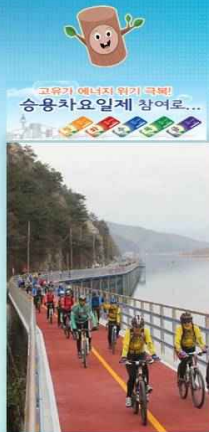
녹색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건축자재는 단열성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쓴다.



#### IV.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 녹색교통 중심의 도시

-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저공해 사업
  - 공공기관 차량 우선, 민간확대, 전기이륜차 보급
- ◆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 우리구 40.2%(서울시 39.3%)
- ◆ 차 없는 거리 조성(삼선시장길)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 보행친화도시 건설(핵심전략과제)



#### IV.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 우리구 70.1% (14년까지 72.5%)
- ◆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처리 시범사업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104톤/일
  - 공동주택(아파트)종량처리시스템 도입
  - 14년까지 400대 도입 계획
  - 단독주택 및 음식점 종량제 도입 : 칩
-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 RFID 종량처리 시스템



#### IV.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 아름다운 자연의 도시

- ◆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림 조성
  - 정릉동 산1-1일대, 2ha
- ◆ 오동공원 리노베이션
  - 오동공원내, 183,403㎡
- ◆ 북한산 가족형 테마공원 조성
  - 정릉동 산 87-102, 9,938㎡
- ◆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
  - 웰빙뜨락 조성, 자투리땅녹화
- ◆ 친수 공간 확보 및 수 생태 보전



#### IV.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 녹색생활 실천의 도시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운동

- 현재 우리구 참여율 10% (2014년 30%)
- 우수회원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
- 온실가스감축 우수아파트 등 선정 및 지원
-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 서비스 실시



##### ◆ 녹색소비운동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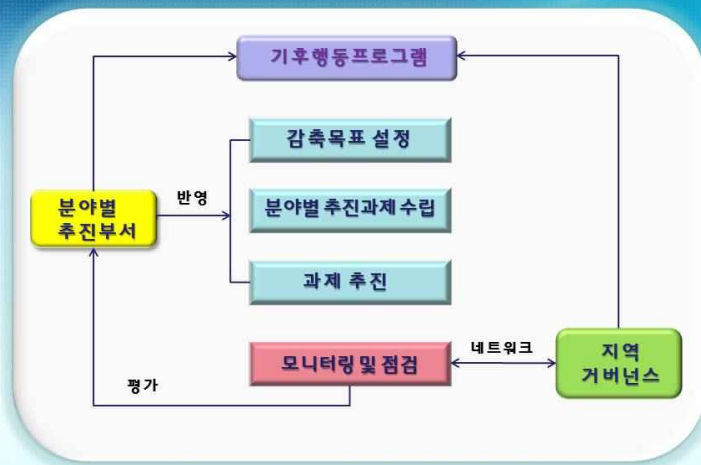
- 녹색장터운영

##### ◆ 도시농업 활성화

- 상자텃밭 보급사업
- 친환경체험농장, 주말농장 운영



#### 평가 및 환류



## 저탄소 녹색성북 시민참여방안 제안

신근정(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사무국장)

### 녹색성북네트워크 구성과 창립의 의미

녹색성북네트워크는 성북구에 위치하거나 성북구를 관할범위로 하는 개인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 2010년 11월 처음 논의를 시작해 2011년 4월 창립했다.

녹색연합, 성북생협, 한살림 북동지구, 초록교육연대(한성여중), 두산위브아파트 에코공동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가게 삼선교점, 내셔널트러스트 최순우옛집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자치조직, 복지관까지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름과 같이 친환경적인 성북구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로, 성북구내에서 친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참여가 주요 활동 목표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구청과 함께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서울시 시정공모사업으로 ‘시민이 만드는 성북구 기후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녹색’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왔다. 특히 ‘시민이 만드는 성북구 기후행동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대응 활동이 정부나 지자체와 같은 행정조직, 기후 에너지 활동을 진행하는 일부 환경단체만의 과제가 아닌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참여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 활동들은 참여단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의 활동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참여사업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다른 활동과의 연계와 향후 전망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상자텃밭보급사업’ 활동평가

녹색성북네트워크는 상반기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상자텃밭 보급 사업에 참여해 가이드북 제작, 사전교육, 참여단체 회원을 통한 배포, 도시농부학교 교육계획 제안 등을 함께 진행했다.

상자텃밭 보급 사업에 녹색성북네트워크가 참여했던 이유는 녹색성북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의 환경활동 활성화와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했지만 상자텃밭 사업의 초기 안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 이후 관리지원, 모니터링, 성과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상자텃밭 활동이 공동체 속에서 이뤄질 때 보다 성과 있고 내실 있는 활동이 이뤄지고 사후관리 지원도 용이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단체에 소속된 회원을 대상으로 보급을 진행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녹색성북네트워크를 상자텃밭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상자텃밭을 받아가는 수혜자, 구정사업에 협조하는 협력단체로 인식하여 보고 보급 사업 이후 의사소통이나 활동연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모니터링과 가을 상자텃밭 보급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각 단체의 사후관리 역시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단체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모니터링 하였으나 이 결과들은 종합되어 구청에 전달되지 않았다.

2012년에 상자텃밭 보급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면 배포 못지않게 이를 활용한 주민의식 향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후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부방을 대상으로 상자텃밭을 보급한 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상자텃밭은 공부방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생태감수성과 성취감, 책임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이 결과가 반영되면 배포대상과 이를 활용한 교육, 사후관리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굳이 성북구 관내의 단체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상자텃밭 보급에서 그치지 말고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로컬푸드, 온실가스 저감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참여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어떻게 할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2011년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통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 ‘시민이 만드는 성북구 기후행동 프로그램’ 기획 배경

기후변화와 고유가는 서민들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작황부진과 가격폭등, 이로 인한 식량위기,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상승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끼친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며 지출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고 식품 및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에도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또한 기후변화는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온의 상승은 오존농도를 높이고 대기질을 악화시키며 동식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염병 발생률과 기상재해도 늘어난다. 이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배출은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지만 대량생산과 소비, 에너지의 과다 사용 등 시민들의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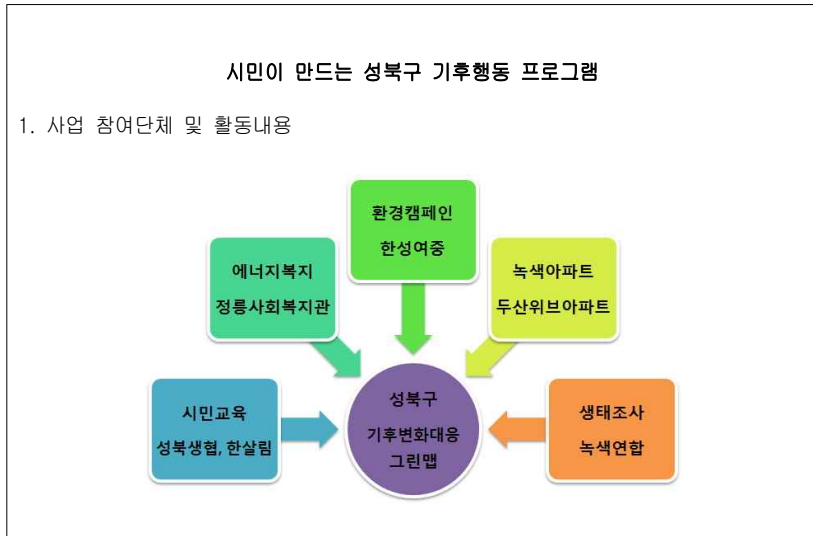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활동은 단순한 에너지 절약의 캠페인이나 국소적인 의미의 위기대응 프로그램이 아닌 생활태도와 가치관

의 전환까지 포괄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기후대응 활동은 국가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나 지역단위, 생활단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정부에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수요관리(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사용량 피크 대책) 등의 각종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녹색생활' 캠페인, 그린리더 교육과 운영 등 범국민 의식 개혁운동도 진행 중이다. 또한, 그린스쿨, 썬셰나라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과 신규아파트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규제조항 등 다양한 정책이 진행 중이다. 각 지자체 역시 순차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러 정책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성북구와 같은 지역단위에서는 시민들의 실천전략, 참여전략이 구체화되고 실감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지역단위, 생활단위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극 결합하여 회원들이 함께 시범활동을 진행하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의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저감활동과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2. 세부 사업계획

① 시민참여 기후대응 프로그램 진행

㉠ 시민교육 활동

- 성북생협, 한살림북부지부 소속 식생활지도사 및 조합원 활동가
- 활동내용 : 표준 교안 작성, 마을 모임, 신규조합원,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각 단체 회원교육 등 기후변화와 녹색생활교육 실시

㉡ 에너지 복지활동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및 예비 사회복지사
- 활동내용 : 그룹홈 및 관내 저소득층 에너지 상담 진행,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및 시범 주택단열공사

㉢ 청소년 기후캠페인단 양성 및 캠페인 진행

- 한성여중 환경동아리 소속 학생
- 활동내용 : 기후변화와 가까운 먹을거리, BMW 캠페인 등 녹색생활 촉구 캠페인 진행,

㉣ 녹색아파트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및 지침서 제작

-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 관심있는 주민
- 활동내용 : 가전내 에너지 진단, 아파트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 아파트 에너지 사용량 5% 및 시범가정 에너지 10% 줄이기 활동, 녹색아파트 지침서 제작

㉤ 시민환경조사단

- 활동내용 : 성북구 관내의 대학생 에너지 실태조사(고려대학교)

단체별로 진행된 활동내용과 평가는 각 단체 사례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

**활동결과의 시사점 및 확대가능성**

환경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녹색성북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각 단체 고유목적과 접목시켜 각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각 단체의 시야를 넓히고 활동비전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나 학교, 아파트, 생협, 복지관등 삶의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활동이 가능하며, 고유목적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기후변화대책활동은 관주도로 이루어지며 시민들을 활동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계몽의 대상, 홍보의 대상으로만 보아왔다. 이번 활동결과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시민참여가 확산될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활동의 참여를 통해 각 단체는 향후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했고, 새로운 방향의 사업아이템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과제가 확인되었다.

#### (1) 풀뿌리 단체의 역량강화

- 성북구 관내 풀뿌리단체는 구와 시민의 징검다리가 되어 줄 수 있다.
- 역량강화는 사업진행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으로 가능하다. 물적지원으로는 각 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적은 규모의 다양한 공모사업 실시와 우수사례 공모 포상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 확산을 위해서는 복지관, 학교,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교기관 등 이미 구축된 조직과 체계들에 대한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 필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와 사업진행 지원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충실히 본래의 목적사업을 진행해온 단체들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새로운 아이템과 기존 목적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활동영역이 개척되고 기존 목적사업의 활력까지 더불어 얻을 수 있다.

#### (2) 인력지원

- 인력 양성 : 청년공공근로, 청년인턴들이 다양한 비영리 기구에서 삶의 비전을 갖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안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비영리 기관과의 연계는 삶의 가치와 비전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이들이 풀뿌리 시민단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거나 지역내에서 마을공동체, 저탄소 활동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 전문인력과의 연계 지원 : 성북구 관내에는 대학이 많다. 이미 성북구는 대학생의 청소년 멘토 자원활동,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등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각 대학의 그린캠퍼스 활성화는 지역내에서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제공할수 있다. 대학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저감계획에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지원하고 대학의 그린캠퍼스 활동이 지역내에서 소통되고 협력할수 있도록 업무협약 혹은 연계지원이 필요하다.

#### (3) 공동체 활성화

- 지속적인 감축이 발생하려면 개인적인 실천보다 공동체 차원의 활동이 더욱 효과가 있다. 동기유발을 위한 인센티브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 (4) 정보제공과 확산

-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실험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진행되고 있다. 각종 자료와 사례를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가 활용할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창고는 지역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성북구내에서 진행된 관련 활동에 대한 홍보도 지원되었으면 한다.

###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반영 제안

#### (1)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

국가적, 지자체 차원의 기본 통계를 시민의 눈높이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통계가 필요하다. 대학생에너지사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두산위브아파트의 에너지 진단 결과 역시 전기와 가스요금을 직접 관리, 납부하는 주부 외에 다른 가족들은 에너지 사용량을 잘 알고 있지 못했고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외에 공동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있었다.

에너지 사용 통계가 구민들의 생활과 연계되어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인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서초구의 400세대 아파트 세대별 전기 사용량은 평방미터당 779원, 성북구 두산위브아파트의 2200세대 세대별 전기사용량은 평방미터당 679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에너지 절감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북구 관내 위치한 각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 분석하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곳을 선정하여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곳의 생활양식을 살펴보면 좋은 활동 사례를 발굴, 전파할 수 있다. 구민 1인당 에너지 사용량, 구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대당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등 거시적인 국가차원의 통계와 이에 따른 저감 목표를 구민들의 눈높이로 낮춰서 홍보할 때 구민들의 참여 동기도 높아질 수 있다.



## (2) 현황조사 필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에너지 복지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사용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주택단열공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두산위브아파트의 에너지 진단결과 입주당시 빌트인으로 제공된 소형김치냉장고가 에너지 효율이 낮아 활용도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았다. 입주민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조사와 규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노원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는 전기요금 시스템 냉난방 기기 설치이후 4.5배 증가했다. 그래도 학교 구성원들은 냉난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단열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대학의 그린캠퍼스 활동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것은 대학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다. 이를 통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지 계획을 세운다. 이처럼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성북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그에 따른 저감 목표는 계획되고 있으나 아직 세부 행동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활동대상의 생활양식과 입체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 (3)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성북구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삶의 각 부분에서 온실가스 저감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 가정의 대기전력 차단이나 고효율 기기의 보급사업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평면적이다.

종교기관, 학교, 직장, 여가활동 기관, 봉사활동 기관등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활동이 이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활습관이 몸에 배고, 인식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같은 단체나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함께 실행계획을 세우며 실행하도록 진행하려면 우선 성북구 관내 위치한 각 단체들의 에너지 사용현황 및 활동내용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소속 회원들이 인식과 활동을 촉구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활동단체들이 사업제안을 하고 함께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진행한 통계와 현황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또는 사찰등 종교기관에서 실천할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개발될 수 있다. 관념적

인 계몽 캠페인 대신 구체적인 성과와 수치로 표현되는 실천목표가 수립될 수 있다. 이는 녹색성북네트워크의 활동내용 뿐만 아니라 성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동이나 에코마일리지 등과 연계되어 활동의 성과 점검과 피드백으로도 연결될수 있을 것이다.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 풀뿌리 단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는 구청의 행정과 활발한 시민참여로 가능하다.

활발한 시민참여는 구청의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다양한 실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정책이 발굴되고, 행정에서 계획된 정책들의 실행방안이나 비전, 목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을 뜻한다. 현재 성북구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고 시민단체관계자,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시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 시민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제 보다 시민참여가 활발해지는 또 다른 방법은 성북구의 풀뿌리 단체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다양하고 많은 단체들이 여러 활동을 실제 실행해보고 구민들을 교육, 참여시키면, 전반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한 녹색성북네트워크의 구성과 활동은 의미가 있다. 9월에 결성된 성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도 구민과 참여단체들을 단순히 계몽의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말고 계획과 실행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중점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온실가스 저감과도 직결될 수 있다.

마포구 성미산 및 영국의 토트네스, 독일의 많은 에너지자립마을들에서 확인한 바로 공동체의 활성화는 해결해야할 다양한 과제들에 창의적이고 효과있는 해답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은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 동기를 부여하고 실천을 함께 하며 목표를 함께 실현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온실가스 저감 활동은 지속적이이고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www.greenkorea.org](http://www.greenkorea.org)

136-821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 팩스 02- 766-4180